



2015년 3월 20일 제 62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동향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 [불법어업] **美 대통령 T/F, 불법어업 및 수산물 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어업 및 수산물 사기 근절을 위한 행동계획」 발표:** △TPP 협상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부정표기 수산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미 관세코드 수정 등 집행수단 강화 △포털사이트 개선을 통한 정보공유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모든 수산물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
  
- [IT산업] **IT와 제조업간 융합으로 스마트 산업혁명 시작:** △IT 융합제품 세계시장 전망은 '10→'20의 10년간 2.4조달러 증가 △글로벌기업들은 핵심 IT 기술을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제조방식 혁신 △융합 및 맞춤형 생산을 통한 개인맞춤형 제품 서비스 플랫폼 선점으로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미국 「Making in America」 등 국가 아젠다 차원에서 스마트 산업혁명 준비
  
- [식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2.3):**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 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 [상계관세] **美상무부, 한국산 라인파이프(Line Pipe)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판정(3.17)**  
 \* 라인파이프(Line Pipe) :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에 주로 사용되는 탄소 또는 합금 원형 파이프 (넥스틸 [0.47%], 세아 [0.52%])
  
-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 불법어업 및 수산물 사기 근절을 위한 행동계획

불법어업 및 수산물 사기 근절을 위한 미 대통령 T/F(Presidential Task Force on Combating IUU Fishing and Seafood Fraud)에서는 지난해 12.16일 해양대기청을 통해 발표한 T/F 제안서의 후속조치로 「불법어업 및 수산물 사기 근절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함.

## 1 주요 발표내용

- 동 행동계획을 통해 불법어업 및 수산물 사기 근절을 위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주정부, 지방정부, 업계 그리고 비정부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확대하고자 함.
  - 그리고, 어획부터 미국시장 반입까지 수산물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하여 위험도에 기반한 추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불법어업 및 수산물 사기 근절을 위해 국제적 관리 및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외국 파트너와의 공조를 강조함.
- 또한, 전세계 어획량 및 수산물 수출의 약1/4을 차지하는 지역의 무역협정인 TPP에 역사적이고 실행 가능한 환경조항을 포함하려는 미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임.

## 2 핵심 행동 계획

- (국제사회와의 공조)
  - 불법어업 근절 및 최초의 유해한(harmful) 수산보조금 중단 조항을 포함하여 2015년 TPP 협상 마무리

- 의회협력을 통해 항구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입법화 추진 및 14개국 이상으로부터 동 협정 가입의사 확보
- 국제 정부,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등과 공조하여 국제어업에 대한 감시·통제·감독을 위한 실행방안 개선과 항만국통제 마련 및 모니터링 준수

○ (집행수단 강화)

- 2015.9월까지 불법어업 방지 또는 미국시장 반입 부정표기 수산물에 대한 정보 및 자원의 수집·공유·분석을 위한 최적의 전략 마련
- 2015.12월까지 수출입 수산물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미 관세코드를 권장된 방법으로 수정
- 2015년 연방 및 지방정부 합동 집행·수사·기소시 수산물 사기 및 불법어업 수산물 판매 근절에 우선순위 부여

○ (파트너십 확대)

-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례 공개포럼 개최, 관련기관 보유정보 공유를 위한 웹 포털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특정 불법어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불법수산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증진

○ (추적시스템 구축)

- 2015.10월까지 어획 및 양식단계에서 미국시장 반입까지의 수산물 공급망을 따라 수집되어야 할 정보유형과 정보수집 방법 규정
- 2015.10월까지 공공 참여절차를 통한 파트너 의견반영과 함께 불법어업 또는 수산물 사기 위험도에 기반하여 추적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될 어종들 지정

- 2016.9월까지 위험어종의 미국시장 반입시 요구되는 추가정보 수집을 위한 규정의 제정 완료
- 소비자와의 추적시스템상 정보(어종, 원산지, 생산수산 등) 공유방안 결정
- 2016.12월까지 T/F는 추적시스템 적용 1년간의 경험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 미국시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추적시스템 확대적용을 위한 다음 단계 강구

/끝/

※ 내용 관련 문의: 변재영 해양수산물관 (202-641-3742, jybyeon01@gmail.com)

# IT와 제조업의 융합, 미국의 스마트 산업혁명 동향

□ 인터넷 세상(Web)에 국한되었던 IT가 생산, 제품 등 제조업과 결합되면서 스마트 산업혁명이 시작

○ 생산방식, 제품·서비스 성격, 비즈니스 형태 등에 근본적 변화 야기

## < 스마트 산업혁명의 양상 >

구분	현재(As-Is)	미래(To-Be)
생산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품종·대량생산</li> <li>▪ 규모의 경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맞춤형 유연생산</li> <li>▪ 범위의 경제</li> </ul>
제품·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고유기능 충실</li> <li>▪ 가격·품질경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디바이스화</li> <li>▪ 소프트파워 경쟁</li> </ul>
비즈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수요 존재시 수익창출</li> <li>▪ 양산설비가 비즈니스 전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틈새수요로도 수익창출</li> <li>▪ 3D프린터, 온라인 유통 등 → 공장 없는 창업·비즈니스</li> </ul>

○ 창의적 융합신제품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조기업과 IT기업간 전통적인 영역 경계가 파괴



\* IT 융합제품 세계시장 전망(ETRI, '10) : ('10) 1.2조달러 → ('20) 3.6조달러

- (제조업→IT) 밀레의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 최초 공개, 지멘스 'Digital Factory 사업부' 신설 등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선점 노력
- (IT→제조업) 구글(자율주행자동차, 구글글래스 개발), 아마존(드론업체 인수, 파이어TV 개발) 등 R&D, M&A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양상이 'Time to Market'이 중요한 융합 신시장 선점의 속도전으로 변모

- ①신속한 사업재편, ②신제품 조기개발, ③효율적인 시제품 제작, ④최적화된 양산시스템 등에 대한 핵심역량 확보가 중요



- 글로벌기업들은 인식, 통신, 제어 등에 대한 핵심 IT를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제조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 중
- 센서, 빅데이터,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생산시스템과 결합한 최첨단 '스마트공장'이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서서히 확산

 지멘스(獨) 암벡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능 자동화 설비와 관리시스템간 실시간 연동으로 다품종·고수율 생산 구현(수율:원자재에 어떤 화학적 과정을 가하여 원하는 물질을 실제로 얻는 분량)</li> <li>▪ 1천 종류 제품을 연간 1,200만개 생산 가능하며, 세계 최고수율 99.9988%(불량률 12ppm) 달성</li> </ul>
 테슬라(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기능 로봇(용접, 조립, 절단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 외에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지능형 유연생산 공장 구축</li> </ul>

- 실시간 시장소통을 통한 개인맞춤형 제품·서비스 출시, 제품·서비스 플랫폼 선점 등 모방할 수 없는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로컬모터스(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오픈소스 자동차 공장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제작에 참여</li> <li>⇒ 대량생산체제에서 출시되지 않는 독특한 자동차 생산</li> </ul>
 솔즈(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앱과 3D프린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발모양에 최적화된 맞춤형 깔창을 주문 제작</li> </ul>

- 융합·맞춤 생산과 신속한 시장출시의 핵심역량이 다양한 시제품(Prototype) 제작임을 고려, 시제품 제작기간·비용 절감노력 강화

 보잉(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풍동(Wind-tunnel)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기간 60% 단축, 비용 45% 절감</li> <li>* ('80) 프로토타입 77대 제작 → ('05) 11대 제작</li> </ul>
 포드(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진부품 시제품 제작에 3D프린터·스캐너 등 3D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기간과 비용을 크게 감축</li> <li>* (기존) 4개월, 50만달러 → (개선) 4일, 3천달러</li> </ul>

□ 국가 아젠다 차원에서 스마트 산업혁명 준비중

- 미국 「Making in America」('14) : 디지털 디자인과 3D프린팅 역량 강화 ⇒ 시제품 제작기간·비용 절감 및 혁신형 창업 촉진
- \* 3D프린팅 혁신연구소를 벤치마킹한 제조혁신허브(NAMII) 15개 설립, 350개 현장사무소와 1,400여명 기술전문가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끝/

※ 내용 관련 문의 : 정성환 방통관 (202-939-6478, xyz3812@gmail.com)

#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포(15.2.3/ 시행16.2.4) -

◇ (식품안전) 한국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 (공포 15.2.3 / 시행 16.2.4)하여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 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대전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15.2.3 / 시행 16.2.4) 되어 동 법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법안의 제정취지, 시행 방안 등을 알려 드리고자 함.

□ 주요 내용

-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통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수입식품 증가 현황>

- 건수(건) : 329,644('04) → 395,641('09) → 554,182('14)
- 물량(천톤) : 12,988('04) → 13,077('09) → 16,353('14)
- 금액(백만불): 9,740('04) → 12,961('09) → 27,425('14)

- 이번 특별법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임.

-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

- (현지실사 강화) 위해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운영) 효율적인 해외 현지실사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실사를 진행
  -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축산물별로 위생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수입 조건을 결정
  -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제 도입) 또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에 대해서도 등록제가 도입되며,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
  -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영업자별·제품별로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HACCP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2016년 2월 4일 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끝/

※ 내용 관련 문의 : 이승용 식약관 (202-939-5650, codexlee@gmail.com)

## 한국산 라인파이프(Line Pipe) 상계관세 상무부 예비판정

□ 미 상무부는 2015년 3월 17일, 한국산 라인파이프(Line Pipe)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내림

\* 넥스틸: 0.47%(미소마진), 세아: 0.52%(미소마진)

○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2015년 7월 28일 예정

□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인 터키에 대해서는 3.76%~8.8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음

< 한국산 라인파이프 반덤핑/상계관세 피소 주요정보 >

5

- 피소일 : 2014.10.16

- 제조사 :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ACIPCO"), Energex(a division of JMC Steel Group), Maverick Tube Corporation, Northwest Pipe Company, Stupp Corporation (a division of Stupp Bros., Inc.), Tex-Tube Company, TMK IPSCO, Welspun Tubular LLC USA 등 8개사

- 국내 피소업체 : 동부, 동양, 휴스틸,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세아, 풍산, 삼강, 미주, Chang Won Bending, EEW Korea, Korea Cast Iron Pipe, Steel Flower 등 13개사

- (조사 의무답변자: 넥스틸, 세아제강)

- 조사대상 품목 :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에 주로 사용되는 탄소 또는 합금 원형(스테인리스 제외) 파이프(외곽지름 24인치 이하, 두께, 길이, 표면처리, 끝단처리 등과는 상관없음)

- 수입실적(상무부 자료)

한국	2012	2013	2014
물량(톤)	679,500	656,600	702,600
금액(달러)	655,041,000	554,057,000	543,600,000
터키	2012	2013	2014
물량(톤)	60,300	59,900	78,100
금액(달러)	52,482,000	46,724,000	94,717,000

/끝/

※ 내용 관련 문의: 최성준 상무관보 (202-939-5670, s505agnie@gmail.com)

#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3.20 금)

**DOW(0.65% 하락) KOSPI(0.03% 하락) 달러 환율(0.52% 상승)**

## [주가]

재경관심

	'13말	14.11말	12말	15.1말	2말	3.18	3.19	3.2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827.75	17,983.07	17,416.85	18,214.42	17,849.08	18,076.19	<b>17,959.03</b>	-0.65%	-1.40%	0.74%
Nasdaq	4,176.59	4,787.32	4,777.44	4,683.41	4,987.89	4,937.44	4,982.83	<b>4,992.38</b>	0.19%	0.09%	4.28%
S&P 500	1,848.36	2,072.83	2,080.35	2,021.25	2,110.74	2,074.28	2,099.50	<b>2,089.27</b>	-0.49%	-1.02%	0.79%
KOSPI (한)	2,011.34	1,980.78	1,915.59	1,949.26	1,985.80	2,028.45	2,037.89	<b>2,037.24</b>	-0.03%	2.59%	2.85%
NIKKEI (일)	16,291.31	17,459.85	17,450.77	17,674.39	18,797.94	19,544.48	19,476.56	<b>19,560.22</b>	0.43%	4.06%	12.03%
FTSE100 (영)	6,749.09	6,723.42	6,547.00	6,810.60	6,949.73	6,837.61	6,947.44	<b>6,981.15</b>	0.49%	0.45%	3.83%
DAX (독)	9,552.16	9,974.87	9,805.55	10,737.87	11,327.19	11,980.85	11,922.77	<b>12,050.93</b>	1.07%	5.26%	19.53%

## [금리]

(단위: %)

	'13말	14.11말	12말	15.1말	2말	3.18	3.19	3.2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7	0.02	0.03	0.03	0.03	0.05	0.03	<b>0.03</b>	0.00	0.00	0.01
T/NOTE (10년)	2.99	2.24	2.20	1.77	2.03	2.06	1.93	<b>1.98</b>	0.05	-0.05	-0.26
T/NOTE (30년)	3.90	2.95	2.76	2.33	2.63	2.61	2.51	<b>2.54</b>	0.03	-0.09	-0.41
LIBOR (Dollar, 3월)	0.25	0.24	0.26	0.25	0.26	0.27	0.27	<b>0.27</b>	0.00	0.01	0.03

## [환율]

	'13말	14.11말	12말	15.1말	2말	3.18	3.19	3.2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107.90	1,090.95	1,093.50	1,098.40	1,129.90	1,117.20	<b>1,123.00</b>	0.52%	2.24%	1.36%
Y / US\$	105.30	118.21	119.55	117.80	119.17	121.38	120.50	<b>120.69</b>	0.16%	1.28%	2.10%
US\$ / EUR	1.3736	1.2448	1.2128	1.1338	1.1214	1.0581	1.0770	<b>1.0687</b>	-0.77%	-4.70%	-14.15%
CNY / US\$	6.0628	6.1465	6.2184	6.2507	6.2696	6.2386	6.1938	<b>6.1893</b>	-0.07%	-1.28%	0.70%

## [유가]

	'13말	14.11말	12말	15.1말	2말	3.18	3.19	3.2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 선물 (\$/배럴)	98.42	73.69	54.12	44.53	48.17	43.46	44.66	<b>43.96</b>	-1.57%	-8.74%	-40.34%
Dubai (\$/배럴)	107.88	73.33	53.62	44.63	58.42	51.64	51.24	<b>53.40</b>	4.22%	-8.59%	-27.18%

\* 최종종가 기준 작성